



2012 엑스포 여수로

BIE실사 D-11

정부 엑스포 올인

“실사단 좋은 인상 갖도록 적극 지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다음달 9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여수 현지 실사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권오규 부총리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실사는 실사단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든 부분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실사단에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여수의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숙박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고급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홍보처는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

남도, 여수시와의 공조를 통해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법무부는 국제박람회 사무국 실사단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현재까지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SOC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외교교통부는 재외공관과 해외 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해 BIE 회원국들에 대한 교섭, 외교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수엑스포유치실무위원회에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각 제의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는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실사단의 방한 기간에 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열대’ 기후변화 어류지도 바꿨다

서남해 난류어종 망치고등어 등 급증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김주일(50) 연구원은 이달 초 여수 어관장을 둘러보다 망치고등어가 판매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대표적인 난류 어종 가운데 하나인 망치고등어는 매년 8~9월이나 되어야 이 지역 어관장에 선을 보이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무려 6개월이나 빨리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9면〉

김 연구원은 “수온이 매년 상승하면서 전남 서남해안에서 잡히는 어종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온이 상당히 높아져야만 나타나는 망치고등어가 3월도 채 되기 전에 전남 남해안에서 잡혔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전남 서남해안에서도 연초부터 아열대성 어류가 출현하는가 하면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전남 연안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가 크게 바뀌고 있다.

28일 남해수산연구소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서남해안의 수온이 전년에 비해 1~2도가량 높아



지면서 망치고등어와 강담돔, 선충치 등 그동안 잡지 못했던 아열대성 어류들이 눈에 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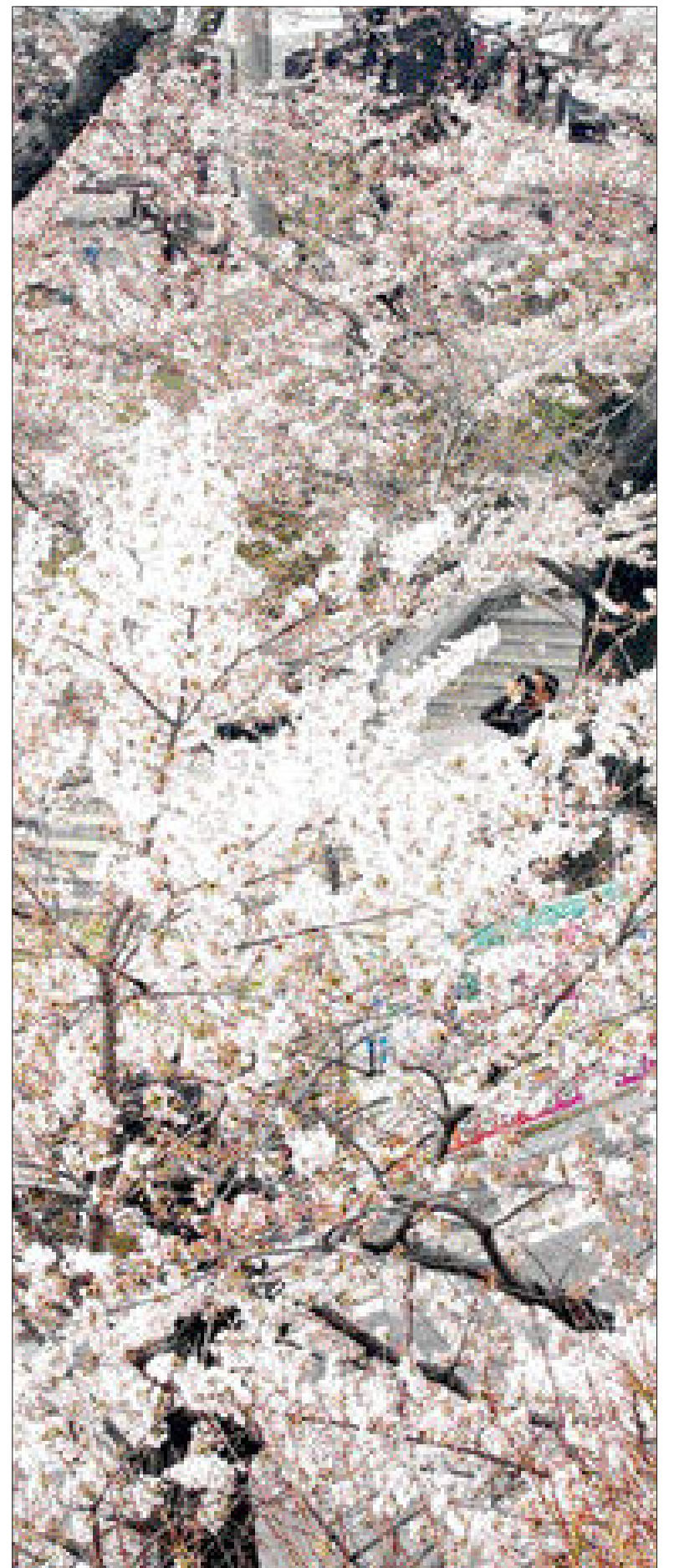
많이 잡히고 있다. 여수 인근 해안의 경우 이달 초 평균수온은 섭씨 8도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7도에 비해 1도 이상 높아졌으며, 목포 인근의 수온 역시 6.6도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4.8도보다 1.8도가 상승했다.

이처럼 서남해안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난류성 어종인 멸치의 최근 어획량이 예년보다 120%가량 증가하고 조기나 어귀의 어획량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해수산연구소 측은 서남해안의 경우 지난 80년대에는 쥐치와 멸치, 정어리, 고등어 순으로 어획량이 많았지만 최근엔 쥐치와 정어리가 자취를 감추는 대신 대표적 난류성 어종인 멸치와 고등어, 오징어, 갈치류 순으로 어획량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남해안 일대에서는 아열대성 어종인 보구치(일명 백조기)의 어획량이 2~3년 전에 비해 부쩍 늘었으며 씨알도 굵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온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을 필요로 하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花~ 어느새 피었네

한낮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간 28일 광주시 서구 상록희관의 벚나무들이 하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만개한 벚꽃 나무가 도심 속 꽃 터널을 연상케 한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돼지고기 관세 5년내 없애라”

美, 농업 전방위 압박...FTA협상 난항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고위급 협상을 진행중인 한미 양국은 28일 금융분야의 우체국보험 규제문제로서 의견집근을 이뤘다. 그러나 전날 쇠고기 분야에서 강한 입장을 제시했던 미국이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5년내에 없애라는 요구를 전달해 농업협상은 여전히 진통이 다. 〈관련기사 3면〉

한미 양국 협상단은 28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간 장관급 협상을 속개하는 한편, 농업과 금융, 섬유분야에서 연쇄 고위급 절충에 나서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

김성진 재정부 국제업무정책관과 클레이 로워리 미 재무부 차관보간 진행된 금융 고위급 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중 하나인 자금 이탈 방지 장치(단기 세이프가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중앙은행 강제예치분의 정상수익 보장 등의 요구를 완화한 대신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타결이 쉽지 않은 상

황이라고 전했다.

전날 미국의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에 대한 서면약속 요구로 충돌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만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관세양해안과 관련, 돼지고기의 경우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쇠고기도 가급적 단기 철폐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 정책관은 “타결은 해야겠지만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과 함께 최대 격전분야인 자동차 협상에서는 미국이 관세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협상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FTA 협상 시작 이래 배기량 기준 세계의 개관과 자동차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장치의 연기 등을 요구할 뿐,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정일 “부시 친서 달라”

고위급회담 거듭 요청...“라이스 방북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간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북수의 한미 고위관계자들이 19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의지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달 초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 참석차 방미했을 때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 미 고위관리들에게 직접 밝혔고, 부시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북핵문제에 정통한 고위당

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전했다.

앞서 김 부상은 지난 5.6일 뉴욕 방문 때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매들린 올برا이트 전 국무장관이 평양을 전격 방문, 수교 논의의 물꼬를 텃던 것처럼 관동리자 리스 장관이 부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달라는 뜻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이같은 의지 표현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ROLEX OYSTER PERPETUAL DATEJUST

블록스 지정 판매점 · 광주 신세계백화점 2F 062-360-1340

‘영광법성굴비’ 美서 도용

무역업체, 특허상표·군수사진 무단 사용

영광군이 특허 출원한 영광굴비 상표가 미국 현지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지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미국 동부지역에서 영광굴비를 판매하고 있는 S식품이 지난달부터 미주 한인신문과 케이블방송 등에 영광굴비 광고를 하고 있다.

영광군 내 굴비 생산 업체인 Y수산을 통해 굴비를 수입하고 있는 S식품은 광고 문안에 영광군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영광법성굴비’ 상표와 군수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통성 영광군 해양수산과장은 “Y수산이 임의로 ‘영광법성굴비’ 상표와 군수 사진 및 사인 등이 부착된 굴비를 S식품에 수출했다. S식품이 수입한 굴비에 임의로 상표 등을 부착하는 지 확인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두 업체 모두 상표 사용 허가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중국산이나 인도네시아 산 등 유사제품과의 차별화 및 수출업체간 가격 경쟁 방지를 위해 강중에서 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굴비 직판 행사를 열어 9만8천달러 어치를 팔고, 450만달러 어치를 계약하는 실적을 올렸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우림재단 장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